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동역자님들 삶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넘치게 부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베네수엘라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마존 선교

판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아마존에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5월마지막주에 4일동안 예림이를 데리고 조엘 선교사와 함께 아마존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부흥 선교회 사역과 선교센터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 사역을 담당하던 엘리야 선교사가 저희와 함께 카라카스에서 사역하기 위해 작년 6월 판데믹 가운데 카라카스로 이사를 오면서 현지 리더십들을 세워놓고 왔지만, 사역 이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판데믹 이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리더십들을 잘 세우고 정리했습니다. 선교회 창립부터 늘 함께했던 리더들 중에서 4부부 커플들이 각 사역 담당자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아마존 선교를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의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펜데믹으로 인해 아마존 선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와 청년들이(목회자와 리더까지도) 아마존 정글 금광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가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사라지거나 약해져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지교회들도 선교에 손을 놓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 중 야노마미 부족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이제 1명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자쿠초 도시에 남아있는 야노마미 형제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떠나기 전 도시에 남아있는 야노마미 리더를 만나 함께 울며 다시 사역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주일마다 선교센터에서 야노마미 형제들 100명가량이 모여 함께 예배한 모습을 떠올리며 정말 빨리 다시 모여 예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야노마미 사역만 했던 현지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을 하여 가능했는데 모두 콜롬비아나 미국으로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야노마미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저희와 노숙자사역을 오랫동안 함께 섬겼던 실베리오 목사님 부부가 저희와 함께 야노마미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 부부 외에도 4년 전 아마존에 도착해 선교하고 있는 의사 부부, 30년 넘게 군인으로 일하다 올 해 퇴임해서 나머지 삶을 선교에 드리기로 한 벨로 부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선교 여행을 다니며 왕성히 사역하고 있는 구리빠고 부족의 라파엘 목사님, 12년 전 부흥 선교회에 들어왔던 청년에서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자기 부족 젊은 세대의 리더로 모델의 삶을 살고 있는 마르빈 부부, 그리고 우리 옆에서 너무도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으며 언젠가 아마존에 돌아가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조엘 선교사 등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아마존을 사랑하시고 계시며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봤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예림이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언젠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아마존에 내려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저희 자녀들도 함께 선교하기를 기도하였었는데 저희에게는 큰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번 여행을 통해 15년전 처음 선교 나왔을 때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가족과 선교팀을 꾸려서 다시 아마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교회들을 연합하여 미션 아마존 단체를 세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본격적으로 아마존 선교를 다시 하기 원합니다. 또 작년에 구입했던 선교센터의 옆 땅에 건축하다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아마존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을 위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방문할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주님 뜻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베네수엘라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 되어 선교의 완성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

계속되는 판데믹 가운데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현지 목사님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을 하거나 돌아가신 소식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 베네수엘라 신학교 3기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3명과 사모님께서 남아 계시는데, 남은 유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베네수엘라에서 감사하게도 러시아 백신 1차를 접종했습니다. 매일 급변해가는 세상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 하신 약속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함께 만나 주님 찬양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베네수엘라에서 김 도현, 강 미애, 김 예림, 김 예준 가족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교회들을 연합하여 미션 아마존 단체를 세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본격적으로 아마존 선교를 다시 하기 원합니다. 아마존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을 위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베네수엘라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 되어 선교의 완성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베네수엘라의 많은 현지 목사님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을 하거나 돌아가신 소식들이 있었는데, 남은 유가족을 위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8월 01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카잔 선교의 바람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카잔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함께 수고하며 섬겨주시는 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5월 13일) "우라자 바이람" 이슬람 명절로 쉬는 날입니다. 이 명절은 라마단 기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알리사의 어머니가 알리사의 집에 찾아와 알리사가 예수 믿는 다고 짐을 다 치워버리기도 하고 저에게 전화해 캠프에 데려가나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했는데, 차츰 알리사 어머니의 마음이 풀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은 부활주일로 초청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청한 사람들 중에서 올리야나 친구들만 2명 참석해 시간을 나눴습니다. 모두 카잔대 정치학과 대학생들인데 저와 아내가 한국어도 가르치는 아이들입니다. 타나라는 학생은 올리야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라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는데 계속 교회에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월 8-10일 2박3일간 현지 한국인 선교사의 3 개의 교회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했습니다. 카잔에서 2시간 반 떨어진 요쉬카르 올라에서 진행된 캠프에 현지인은 모두 2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캠프가 진행되어 모두들 감사했고, 또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현지인은 5명이었는데 캠프에서 바짐이란 청년이 성령을 받고 또 파리트 아저씨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올리야나는 방언을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알리사는 캠프에서 이슬람 가족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합니다.



5월 11일 이유없이 충기를 난사해 무고한 쉬꼴라 학생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잔과 사랑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슬람친구들을 구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 바라며, 이를 위해 힘써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타타르의 무슬림 청년들 복음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코로나19 기간에도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령충만해지고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3. 한글학교 사역과 대학사역에도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바탕이 되어지고 저와 아내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도록
4. 교회와 한글학교 사역을 위한 모임 장소를 위해서
5.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올바른 인격성숙, 6월23일 수술한 세아의 왼쪽 다리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타타르스탄 주선민, 손소미아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6월 중순으로 AFA날짜를 정하고 있었지만 브라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심각해서 브라질 목회자들이 지금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꿈으로 환경에 눌러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 AFA를 하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깬 저(사모)는 목사님을 깨워 꿈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내외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AFA를 하기 원하셨고 7월 전에 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관에 전화해서 6월 말로 날짜를 옮기고 브라질 목사님들에게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하다 8월에 하자 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한분도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분이 없었고 각 지역 별로 회의 날짜를 정하고 매 주 다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가 적극적이었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캔디와 팀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캔디를 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이번 처음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AFA는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만 무사히 진행이 되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놀리고 힘든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팀 멤버들도 뜨거운 기도로 같이 참여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찬양 파티는 뛰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힘들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 하십니다. 어느 누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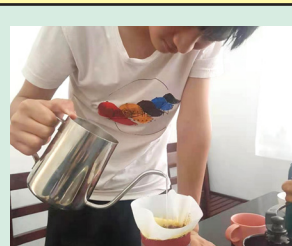


<기도제목>

1. 12월 청년 AFA를 위하여
2. 제자 사역을 위하여(Serra지역의 신학생들을 위한 제자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3. 목회자들의 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되었지만 다시 전개가 되도록.
4. 저희 내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5. 코로나가 모든 나라에서 사라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브라질 한인승, 선희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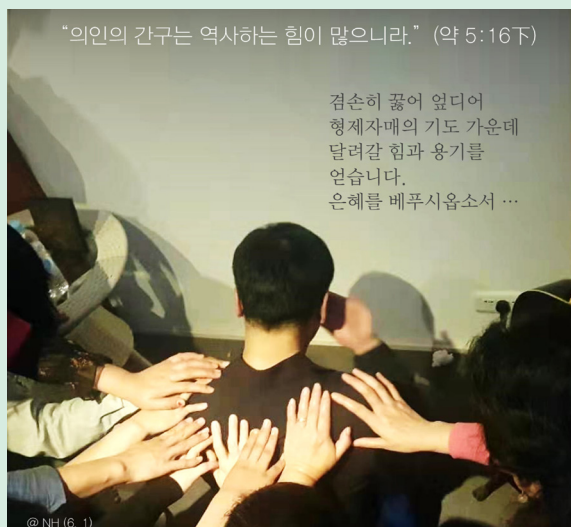
LOVE LETTER



음악과 D훈련을 하는 3년 과정의 BJ스쿨은 해당국가의 특수 정황상 비인가 과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제 막 시작한 커피교실이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실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설정에 실제적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욱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마음 모아 응원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은 학생들과 함께 한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 5:16)

겸손히 꿇어 엎디어 형제자매의 기도 가운데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

<기도제목>

1. NH기관의 D훈련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2. BJ스쿨의 선생님들이 온전한 신앙인격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3. 언어와 학업(논문), 신변의 안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중국 조○○ 윤○○ 선교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파푸아뉴기니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저희에게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조금 늦게 떠니기를 권하며 눈물과 염려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떠나보내시는 분들이나 떠나는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5월 28일에 아스프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몸이 좋지 않았던 남영미 선교사는 누기니행 비행기 이륙 후 "아버지 너무 아파요. 단잠을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더니 착륙할 때까지 단잠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경비행기 장으로 우아레 부족 선교사님이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먹고 힘을 얻어 우카룸 파에 잘 도착 했습니다. 길가에서 환영해 주는 선교사님들에게 손을 흔들며 선교사님들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식재료가 부족한데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보내 준 선교사님들과 자가 격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준비해준 나마 부족 선교사님, 카니누와 부족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자가 격리 하면서 줌으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6월엔 고로카에 있고, 7월엔 모로베 지역의 마을로 갑니다. 와스 패밀리(Was family; 마을의 안전 돌봄이 가족)와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와스 패밀리, 마을 사람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동역해 주시고, 저희와 모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열악한 의료 체계로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는 파푸아뉴기니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않도록 하여 주시도록 코로나, 예방 수칙이 각 부족마다 정확하게 전달되어 예방을잘할 수 있도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평안이 하도록 치안이...
2.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각 부족의 성경번역 선교사들과 현지인 성경번역자들 위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비거주 원거리에 서 번역되고 있거나 현지에서 번역되고 있는 모든 성경이 잘 번역되게 하시고, 번역 된 성경을 통해 부족의 교회들과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3. 비거주 원거리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운용 선교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체력을 주셔서 언어자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게 될 현지인 성경번역자 들 언어학 훈련 사역과 성경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전자 문서화해서 컴퓨터로 읽어낼 수 있도록 변환해서 잘 보관함으로 각 부족마다 성경번역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김운용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네팔 이예신 선교사- 혈액암, 림프암 그리고 유방암 치료 중에 유방암이 빠로 전이 되었으며 4기 이기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분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5월11일부터 (주 5일)전립선 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현재 왼쪽 골반과 왼쪽발 뒤꿈치 통증이 있어 일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을 이겨 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넘치길
5. 중국 박00-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시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회복과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7.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과 폐의 회복을 위하여
8. 파나마 김재한 선교사 -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이 나와서 9월 중에 수술 예정 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평강의 손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